마렉병 (Marek's Disease)

원 송 대
〈경북 축산 기술부장〉

마렉병은 바이러스(Herpes Virus)에 의해서 신경이나 피부에 염증병변 혹은 내장조직에 종양병변을 일으키는 닭의 무서운 전염병으로 보통 6주령부터 20주령안에 발생한다.

이병에 대한 치료책이 없으니 다음의 방역사항을 잘 준수해서 마렉병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 일령이 다른 계군의 혼사(混舍)는 절대로 금할 것.

○ 60일령까지 격리 육추사육을 필히 지킬 것. 마렉병은 이 기간에 감염율이 높다.

○ 육추실은 성계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 육성기간중 닭에 스트레스를 최소한 감소시킬 것. 특히 여름철의 고온, 밀사, 이동, 접종중에 스트레스를 받은 후 발병하기 쉽다.

○ 육성기간중 영양관리에 유의할 것. 특히 대추사료는 질에 중점을 두어 선택할 것.

○ 성계사 관리인은 유추실에 들어갈 경우 필히 신과 옷을 갈아 입고 손을 씻고 들어갈 것.

임상학적 분류

임상학적으로 10주령전에 나타나는 종양형과 10주령후에 나타나는 신경형으로 구분한다.

(1) 염증성 마렉병

일명 고전형 또는 신경형이라고도 하며 신경이나 피부에 염증성 병변이 생기는 것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다리의 마비로 절름거리거나 날개가 축 느려뜨려지는 경우도 있고 간혹 경부미주신경의 마비로 소낭의 식체가 생기는 수도 있다.

전형적인 모습은 한쪽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다른 한다리는 뒤로 쭉 뻗고 주저 앉아 있다. (사진 1)

이런 닭은 움직이지 못해서 물과 사료를 못먹어 굶어 죽거나 다른 닭에 짓밟혀 죽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닭을 해부해서 좌골신경을 찾아 보면 (사진 2) 처럼 신경이 종장되어 있다.

(2) 임파구증식성

일명 급성형, 내장형 또는 종양형이라고도 하며 신장, 간, 비장, 생식기, 근육, 심장등에 임파구의 이상증식으로 종양을 형성한다.

최초의 증상은 원기가 없는 닭이 많고 갑자기 폐사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폐사율은 매일 1%정도이고 그 폐사가 약 3주간 계속하다가 줄어진다.

그 폐사의 진폭은 5~7%이므로 채란계의 승패를 거의 좌우하는 병이다. 이런 닭들을 해부해 보면 간, 비장, 심장, 난소, 고환에 백록색의 임파구성 종양을 볼 수 있다.

단 헤브리셔스낭은 종양이 생기지 않는다.

마렉병과 백혈병의 감별법

	마렉병	백혈병
발생일령	6주령이후	16주령이후
신경증상및병변	있음	없음
종양형상장기		
헤브리셔스낭	불형성	형성
내부장기	형성	형성
눈	형성	불형성
피부	형성	불형성
근육	형성	불형성

※ 초생추 사료에 리보풀라빈이 결핍시에 마렉병과 비슷한 좌골신경의 종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 사료선택에 유의해야 한다. □□